



즉시 사용

담당	국무조정실 법무행정팀	팀장 성현국, 사무관 박찬우 (044-200-2089, 2091)
	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	과장 강만희, 사무관 어문용 (044-202-5580, 5581)

이낙연 국무총리,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 노동훈 애국지사 방문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일(토) 오전,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시 남구에 있는 노동훈(92세) 애국지사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.
 - * (참석) 피우진 보훈처장, 이용섭 광주시장, 김영록 전남지사, 김구환 광복회 사무총장
- 당시 학생신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노동훈 지사와 독립운동 당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,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
- 노동훈 지사는 전남 장성 출생으로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무등독서회를 조직해서 식민사관에 대항한 정통역사관 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, 1944년 연합군 상륙 시 행동대원으로 봉기할 계획을 논의하다 적발돼 옥고를 치렀습니다.

- 이 총리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을 위해 힘써 싸워주신 학생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, 정부는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- 이어서,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제작한 '국가유공자 명패'를 처음 달아드리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
 - 이총리는 노동훈 지사 맥에 명패를 달아드리면서,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징표이자 국민들이 애국지사분들을 찾아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
 - 한편, 정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'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'은 그간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명패 달기를 정부에서 통일된 명패로 제작해 배포하는 사업으로, 올해 독립유공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.

- ※ (붙임) 1. 노동훈 애국지사 프로필
 2.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계획
 3. 명패 디자인

□ **인적사항**

- 성 명 : 노 동 훈(魯 瞳 埴)
- 나 이 : 92세(27년생)
- 훈 격 : 대통령표창(1995)



□ **공적사항**

-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무등독서회를 조직 활동
 - 월 2회모임을 통하여 민족독립운동과 전통역사관 확립에 힘씀
 - 연합군 상륙 시 행동대원으로 봉기할 것 등을 강령으로 정하여 활동
- 1944년 12월 나주경찰서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으로 출옥
- 1995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음

□ 추진 배경

- 6·25 50주년을 맞아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을 실시하였으나, 훼손·변색 및 통일성 없는 디자인 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미흡

* 6·25 50주년계기 보훈처 권장사업으로 시작('00년), 243개 지자체 중 91개(37%) 실시

⇒ 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명패의 품격 제고 추진

□ 추진 방식

- 국가보훈처 주관 사업으로 추진, 지자체와 협업

- (보훈처) 명패 디자인 및 제작 (지자체) 명패 부착 및 관리

- '18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

- '19년부터 상이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확대



- 크기 : 8.5 × 18.5cm
- 재질 : 알루미늄 5T
- 제작방법 :
 - 금형 제작 후 입체가공, 본딩 마감
 - 표면 및 테두리 광택마감
 - 태극, 바닥면 지정색 상감 마감

□ 의미

- 태극을 남색컬러로만 간결하게 표현, 순환하는 역동성을 품고 있는 이미지에 햇불의 이미지를 더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표현
- 훈장의 모습으로도 나타내어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와 품격을 전함

